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

군산시 4월 만료 앞두고, 연초부터 관계기관과 협의 노동부 올해 말까지 연장... 일자리창출 속도 기대감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심의회 심의·의결을 통해 군산시의 고용위기 지역 지정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고용 안정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군산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17.7월)과 한국GM 군산 공장 폐쇄(18.5월)로 2018년 4월 5일 최초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 됐으며 지난해 1년이 연장되어 오는 4월 4일 지정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군산시는 고용위기지역 지정 이후 지난 2년간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고용과 골목상권을 비롯한 전반적인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어 상당기간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을 연장

해 줄 것을 꾸준히 건의해 왔다.

특히, 최근 들어 일부 기업들의 생산 물량 감소에 따른 고용불안과 코로나 19로 인한 불안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더욱 어려운 경기 회복을 위해 시는 연초부터 관계기관과 협의, 지정기간 연장을 추진했다. 시는 군산 고용노동자청 협의와 전라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심의를 거쳐 지난 2월 19일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으며 지역의 어려움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이 연장됐다.

이번 연장으로 군산시는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중단 없이 지속 가능하게 되어 그동안 시에서 추진해 온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사업이 한층 속도를 낼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번 고용위기 지역 지정 기간연장을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도약의 기회로 삼아 고용안정과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북 군산형 일자리 사업의 성공적 안착과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 자동차 대대 부품산업 등 미래 신산업 육성을 통해 군산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시장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구직급여 지급완료 후 직업훈련 받는 기간 동안 구직급여 지급 ▲생활안정 자금 대부요건 및 한도 확대 ▲재취업 및 직업훈련 참가지원 확대 ▲사업주 지원을 위한 고용유지 조치 ▲청년취가 고용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등을 지원하며 이 외에도 범정부 차원에서 지역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게 된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9일부터 공적마스크 약국 판매를 돕기 위해 관내 129개 약국에 자원봉사자를 연계·배치, 요일제 안내 등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상황에 '희망의 손길'

군산지역 자원봉사자 공적 마스크 판매 돕기·제작 등

군산지역 자원봉사자들의 희생이 호흡기 바이러스성 질환인 코로나19의 위기 상황 속에서 더욱더 시민들의 희망이 되고 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자원봉사자 및 개인봉사자들의 손길이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군산시자원봉사센터는 이러한 자원봉사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극대화 시키고 있다.

특히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지난 9일부터 시행된 공적마스크 약국 판매를 돕기 위해 관내 129개 약국에 자원봉사자를 연계·배치, 요일제 안내, 시스템 입력, 마스크 포장 등의 활동을 지원해 시민들의 일선 혼란을 막고 원활한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여전히 마스크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군산시 여성교육장 양재반 수강생과 자원봉사 재능기부자들이 의기투합해 취약계층을 위한 필터 교체

형 수제 면마스크를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이미 지난 2월 자원봉사자들은 자율방재단을 꾸려 소용동 일원 노인시설 외에 삼학동, 문화동, 나운동 일원을 방역 소독했으며, 보건소에서 진행되는 방역 활동에도 참여하여 확진자 동선 주변, 방문 영업장 일대 집중 살균 및 방역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군산시에서는 6일부터 대야 5일장 및 여전 새벽시장, 롯데마트 사거리에서 간이 발열체크부스를 설치, 자원봉사자를 배치해 체열을 원하는 시민들에게 간단한 발열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시민들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동연 군산시 여성가족과장은 "감염병이라는 다소 참여하기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의지를 보내주시는 자원봉사자분께 감사드리며 군산시에서도 코로나19 감염증이 확실하게 가라앉을 때까지 자원봉사자와 더불어 아낌없는 지원을 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 코로나극복 '착한 임대료 상생협약' 체결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구역내 임대료 낮추거나 무상임대 등

익산시는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완화하기 위해 착한 임대료 운동에 나섰다.

시는 10일 중앙동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구역 내 건물주 및 임차인들과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착한 임대료 상생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총 12명의 건물주가 참여한 이번 상생 협약을 통해 익산 문화예술의 거리 등 중앙동 원도심 건물을 임차한 16개 점포의 자영업자들은 임대료를 20~30%인하, 동결 또는 무상 임차하게 됨으로써 경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되었다.

중앙동 문화예술의 거리에서 공방을 운영중인 한 시민은 "코로나19로 성수기인 2.3월에 졸업식, 입학식이 다 취소되고 매출이 폭락해 임대료 걱정이

많았는데, 시와 건물주들이 적극적으로 착한 임대료 운동에 나서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이번 착한 임대료 상생협약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라며, 협약에 동참해준 건물주들에게 특히 감사하다"고 전하면서 "이번 착한 임대료 운동이 작은 씨앗이 되어 우리시 전지역으로 퍼져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 취약계층 마스크 우선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등 활용

군산시가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예방을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비롯한 사회보장적수혜금 등 가능한 모든 예산을 활용,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우선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중증장애인을 비롯한 노인, 임산부, 아동, 복지시설 종사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다.

현재 정부가 마스크 공적판매를 시작했지만 물량이 충분하지 않아 노인 및 장애인 등 재난 취약계층은 마스크를 직접 구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그동안 마스크

를 확보하는 데로 상대적으로 재난에 취약한 계층을 우선으로 지급해 왔으며, 특히 지역전파 예방을 위해 PC방과 헬스장, 에어로빅장 등 다중시설종사자와 식품점객업소에도 마스크를 전달했다.

또한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돌봄공백 최소화를 위해 운영 중인 긴급아이돌봄비 지원과 무료급식소 이용자, 공공근로자 및 청소년로자, 재활용 수집인 등에 마스크 및 소독제를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마스크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생각해 모든 세대별 공평하게 마스크를 나눠드리고 싶지만,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배부를 하다 보니 현재는 사회적 취약계층 등 좀 더 절실한 곳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한계점이 있다"며, "힘든 상황이지만 공정하고 공평하게 배부가 원활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가운데서도 마스크를 기부하는 시민들의 온정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서로의 배려를 당부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공적마스크 구입시 주민등록등본 발급 수수료 면제

익산시는 9일부터 3월말까지 공적마스크 구입시 필요한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에 한해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마스크 5부제와 관련해 2010년도 이후 출생한 자녀나 1940년 이전에 출생한 어르신 등 마스크 대리 구매시 또는 미성년자의 마스크 구매시 일부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함에 따라 민원창구에서 주민등록등본 발급시 당초 400원이던 수수료가 3월말까지 면제된다. 이는 공적마스크 구입에 따르는 시

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행정안전부의 조치이다.

온라인 정부 민원서비스인 정부24를 활용해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지만 최근 마스크 구입을 위해 정부24(www.gov.kr)접속이 폭증함에 따라, 주민등록표 등본 청구발급시 수수료를 면제를 긴급 시행한다.

한편 무인 민원발급기 이용 시에도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은 무료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상반기 재정집행 총력 익산시 경기부양 나서

익산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최대 규모의 예산을 신속 집행하며 경기 부양에 나섰다.

시는 이에 따라 올해 지방재정 신속집행 목표를 60%를 설정하고 상반기에 목표액 4,344억원을 적극적으로 집행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신속 집행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소비·투자 및 일자리 사업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공공 얼어붙은 지역 경제를 살리고 서민들의 가계 경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익산시청 회계과 자금부서에서는 "신속한 재정집행을 위해 정기예금 및 국도비 보조금 등을 충분히 확보하여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자금을 적기 지원하고, 이로 인해 코로나 19로 위축된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 양식어업 육성

군산시가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선관련 장비 지원 및 양식어업 육성 등으로 모두가 잘사는 자립 어촌 실현을 만들어가고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경기침체와 어획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돈 되는 수산업, 다 함께 잘사는 자립어촌 실현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군산시 수산업어촌 및 식품산업 혁신발전 2030 계획으로 '군산시 수산업 분야별(8대) 전략 및 실행과제'를 수립했으며 군산시 수산업이 전통과 현실인주형 수산업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고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비전과 전략, 실천 계획을 구성했다.

특히, 지역수산업의 혁신발전을 위해 발굴한 23개 핵심과제에 대한 국가예산 확보 및 신규 사업 공모시 적극 활용에 나설 예정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